



“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 ”

■ 고전 2:1-5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선포를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했는데 신약시대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및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설교자에 대한 견해와 사명 그리고 목적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설교자

설교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견해나 학식이나 재주를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μυστήριον του Θεου)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나타내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2절)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알리고 싶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 대신 자신들의 학식과 명성과 재주를 과시하는 일들에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에 대해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헛필드 목사는 “성직자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기로 작정한 자들 같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알려고 하는 더 좋은 내용이 없음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평생에 들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달라고 성도들이 매달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총뿐입니다.

2. 사람의 지혜를 피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붙들라

설교는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구사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결코 말 재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이 의미하는 말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말을 사용함에 남다른 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복하려거나 지혜의 아름다운 말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거나 지식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하심은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신 것은 가난한 여부 출신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세리 출신들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는 강력한 힘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로 부터 내리는 강력한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최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할뿐더러 성령의 기름부음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욱 기도하는 자여야 하며 죄를 멀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온 교회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결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게걸스럽게 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3절)고 고백하였습니다.

맺는 말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최대 또는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충분히 증거 되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가장 복되게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정원 목사 설교요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예배와 함께 병행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이전처럼 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c/서울교회공식유튜브>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참석했던 예배와 다른 시간의 예배로 옮겨 참석할 성도님들과 새로이 교회예배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사무국이나 교구간사님들께 알려주시되 가능한 1,2,3부보다 4부 예배를 선택해 주시면 분산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씩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경(러시아), 허정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틀로바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비스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디소프, 린롱, 수관준(영글리데시) / 강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선교사) / 정상찬홍성임(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빈 항아리를 깨뜨려라 ”

■ 이종윤 원로목사

-한 덩이 보리떡 되어-

자신을 보리떡에 비꼴다고 해서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인다. 출신이 미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으로서 그것이 오히려 지당한 표현일 것이라고 감수하는 눈치다. 사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바울같은 대석학도 자기는 만산전에 출생한 미숙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했다. 하물며 불탄 포도넝쿨 같고 타다 남은 부지깥이 같은 우리는 자신을 너무 평가 절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보리떡 한 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떡이 굴러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값진 금덩이는 진열장 속에 놓여 있지만 해도 보물의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보리떡은 그래서서 못쓴다. 굴러가야 한다. 가야할 곳을 찾아야 하고, 가야 할 시간에 굴러갈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페인트칠을 해 봐도 보리떡이 어설픈게 금덩이 귀족인 안일을 흉내 내려는 것은 잘못이다.

굴러가는 보리떡은 미디안 적장의 장막을 전복시키는 폭탄이 된다. 기드온이 굴러들어가는 적진 속에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백성들은 진멸되고 바알신상은 분쇄되었다. 한 덩이 보리떡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부정이 타도되고 부패가 일소될 것이며 또 되어야 한다. 격에 맞지 않는 자만이나 안일도 금물이려니와 자학이나 자기 비하 또한 멀리해야 한다. 나 자신이 보리떡임을 자각하고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진을 계속할 때 우리의 주변에서 미디안적 모든 요소를 소멸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사능이 작은 보리떡을 통해서 오늘도 발사되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신다. 금그릇이나 놋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 보리떡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일하신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두려워한다. 삼만 이천 명의 군대가 아닌 삼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메뚜기떼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무수한 약대를 거느린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기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였다.

기드온 군대의 손에는 칼과 활과 창 대신 햇불을 속에 감춘 흙항아리와 승전을 알려줄 양각 나팔뿐이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일 뿐이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부심으로 햇불을 드러나게 하여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그 항아리가 부서지는 순간이 승리의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다. 항아리 자체의 값이 큰 것이 아니다. 더 가치 있는 항아리일수록 부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흙으로 된 항아리일 뿐 그 속의 보배를 드러내야 한다. 그 질그릇을 뛰어나게 해주는 걸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아끼지 말고 자기를 깨뜨려 그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자신을 부셔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내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든가 자신이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지 순간순간 결단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부심으로 햇불을 드러나게 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천 년 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수가 많아서 역사를 변혁시킨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보리떡 같은 어부들이었지만 자신을 드러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되고 구원선이 되었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V 오후 4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행 1:8...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5(성령강림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83(17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288(20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였노라(고전 2:5)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습 3:17 인 도 자

찬 송 380(42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막 8:31-33 인 도 자

설 교 ...“제자의 길, 사탄의 길” ... 인터넷 영상

찬 송 384(434)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8, 7-4, 11-6, 13-15, 14-7, 16-1다락방

◆ 결 혼

1. 홍용덕 군(2교구 홍두화 집사, 조인순 권사의 차남)과 이양지 양(이상훈 성도, 이희선 성도의 장녀) /

6월6일(토) 오후 3시30분 파티오나인 4층 그레이스홀(02-517-7070) / 7호선 학동역 8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4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17명	217명	1,434명	1,576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5/2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24일	헌 금	25,564,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570,000
	특별예배비		107,100
	출 판 비		1,210,000
	인 건 비		6,072,000
	세금과공과		343,970
	복리후생비		63,000
	통 신 비		991,560
	수도광열비		277,310
	차량유지비		2,586,600
	사무용품비		2,500
	소모품비		27,480
	잡 비		16,950,000
	환경유지비		61,600
	수선유지비		242,000
	식당운영비		596,060
	합 계	25,564,000	111,052,18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